



The Parable of the Father and His Two Sons in the Vineyard(1534-1535),
Georg Pencz,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마태 21,29)

■ 미사전례

- 제 1독서: 에제 18,25-28
-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제 2독서: 필리 2,1-11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태 21,28-32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를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7

교회는 왜 존재할까. 본당 사목은 왜 생겨났을까. 수도회는 왜 필요할까. 하느님은 왜 레지오 마리아와 ME, 꾸르실료와 같은 신심 단체들을 섭리하셨을까. 간단하다. 바로 '나' 때문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나'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특수한 영성은 근본적 영성과 개인적 영성의 다리 역할을 한다. 수도회 자체가, 신심 단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 영성과 개인적 영성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특수한 영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영성의 지도자들은 개인적 영성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신자 개개인을 인도해야 한다.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다. 본당 사목을 하는 이유는 신자 개개인을 위해서다. 신자 개개인을 근본적 영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를 위해 본당 특성에 맞는 특수한 영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당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본당은 사회복지에 힘쓰고, 어떤 본당은 성경 읽기 운동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교좌 본당과 농촌 본당의 사목 방향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본당과 이미 성전을 가진 본당의 사목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본당이 가진 본질적 역할을 잊어선 안 된다. 신자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본당이든 수도회든 평신도들의 영적 성화를 구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만 중요하고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간의 직거래다. 공동체 지도자와, 본당 사목자와 신자의 직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이 직거래를 가로막는 지도자를 간혹 보게 된다. 자신도 직거래하지 못하면서, 신자들의 직거래마저 가로막는 이들이 많다.

본당 신부와 수도회 장상, 신심단체 회장은 모두 봉사자다. 물론 봉사자는 영예로운 자리다.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지만 하느님의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못할 때는 그만큼 책임도 크다. 공동체를 이끌 때는 '내 뜻대로'가 없다. 오직 '하느님 뜻대로' 해야 한다. 하느님은 신자 각자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셨다.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향을 미리 형성시켜 놓으셨다. 이 영적인 성향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본당과 수도회, 신심단체 등 특수한 영성들은 신자 개인의 영성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동체 지도자들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배려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목적 자체가 개개인의 영적 성화를 위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 보면 이는 명확해 진다. 예수님께선 손가락 하나로, 한 번에 인류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직접 십자가 위에 못박혀 돌아가셨을까.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더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는 개개인이 이 능력을 발견하고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인적 영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근본적 영성과 특수한 영성은 늘 개인을 존중하면서 개인을 살리는 쪽으로 작용해야 한다. 화살표는 개인적 영성을 향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지도자의 역량이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그동안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이 글을 읽을 모든 '나'를 위한 것이다. 교회 조직이나 신심 단체가 필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수많은 '나' 때문이다. 개인이 하느님과 일치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본당과 수도회, 신심 단체 등 특수한 영성은 신자 개인에게 스트레스(stress)의 'S'를 주어선 안 된다. 영적인(spiritual) 'S'를 주어야 한다. 개인적 영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가톨릭신문 제2756호 (2011년 7월 24일) -정영식 신부 (호명고등학교 교장)>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 추석(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0월 1일(목) 오후 7:30
- 미사 봉헌 예물 접수: 9월 30일(수)까지, 사무실.

☞ 본당 신심 단체 재무감사

- LA대교구 지침에 따라 본당 내 신심단체 회계 보고를 받습니다.
-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제출마감: 2020년 9월 30일
(회계 보고서 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문의: 본당 재무 감사 허관수(라이문도)
☎213-300-3313

☞ 주일학교 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 봉사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정 안토니오신부님 ☎323-493-2727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 YouTube 생방송 미사

- 일시: 매주일 오전 10:00 영어미사
- 검색이름: 성삼 한인 천주교회(Sungsam KCC)

☞ 주일학교 개학 및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7:0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우리들의 정성 (2020. 9. 20 현재)

교 무 금	3,510.00	교무금(18명)
주일헌금	1,041.00	고대준, 권영주, 권오찬, 김애경, 김천애, 박경조, 신주환, 심재경, 안진환, 양효준, 이승복, 이용일, 이인기, 이태종, 임상도, 주창호, 최홍준, 한경희,
감사헌금	235.00	감사헌금(3명) 권영주, 권오찬, 김애경
성소후원비	21.00	성소후원금(10명)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프랑스의 농부인 장 드 폴과 베르트랑 드 모라스의 6남매 중 셋째 아들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Vincentius a Paulus)는 프랑스의 프루이(Prouy)에서 태어나 닥스(Dax) 대학교와 툴루즈(Toulouse)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60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1605년 그는 어떤 부인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 마르세유(Marseilles)에 갔다 돌아오던 중에 해적들에게 잡혀 튀니지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불운을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1607년 아비뇽(Avignon)으로 탈출하였고, 그 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로마(Roma)로 갔으나 1609년에 앙리 4세에 대한 비밀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때 그는 파리(Paris)에서 발로아의 마르그리트 왕비의 전 담사제가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업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618년 그는 성 프란치스코 드 살(Franciscus de Sales, 1월 24일)을 파리에서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1625년 그는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이회는 '빈첸시오회와 라자로회'로 알려졌고 주로 농부들에게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본당 단위의 회를 구성하였으며, 1633년에는 루이즈 드 마리악(Louise de Marillac, 3월 15일)과 더불어 '애덕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병원과 고아원을 세웠으며,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대속하였고 새로운 신학교를 세움으로써 사제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해외 선교사 파견을 물론 프롱드 전쟁의 희생자 구호소를 세웠고 또 영적인 저술을 남겼다.

귀족적이고도 충성스러운 성격을 지녔던 그는 인간의 고통과 비참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다 바친 것이며, 그러한 인간악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적극성을 내보인 탁월한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1737년 6월 16일 교황 클레멘스 12세(Clemens XII)에 의하여 시성되었으며, 1885년 레오 13세(Leo XIII)에 의하여 모든 자선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 베이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